

참가와 동원(動員)의 차이를 생각한다

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참가자가 스스로 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참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리를 한다거나 하기 싫은 것을 할 때에는 즐거움이 생겨나지 않으며 활기도 없다.

그렇다하더라도 '그것은 알지만 실제로 사원이 자율적으로 참가하도록 하면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라고 하는 담당자의 말을 들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사원의 자주적 참가를 기본으로 얼마나 사원들을 레포트를 위한 모임에 끌어들이 것인가 하는 방법을 기술하였다. 그 기본적인 자세가 중요한데, 때로는 동원이라고 하는 작업이 아무래도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동원을 하는 경우에 이것만은 지켜야 하는 기본조건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자.

■ 동원해야 하는 고민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해버린다. 청교도들이 신천지를 찾아 세운 나라, 아메리카는 엄격함을 바탕으로 지닌 나라인데, 그 엄격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금주법(禁酒法)이다. 음주를 법률로 금해 버린 것이다. 물론 마시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래서 고액의 밀조주가 돌아다니고, 그것을 취급하는 갱단이 극성이었다.

그런데 레포츠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활기를 주고 내일의 기운과 생생한 매일

■ 실습 설명회에 대한 연구를.....

그다지 마음이 내키지는 않지만 그곳에 와서 하는 것을 보고 좋았다고 하는 체험을 한 적은 누구나 한두 번은 있을 것이다. 동원을 했을 경우, 참가자에게는 최소한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들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를 위해서는 동원 방법이 우선 궁급하다. '좋으니까 참가해라. 이것은 업무이다.' 등과 무조건 억박지르는 강제로는 반발을 초래할 뿐이다. '때로는 몸을 움직이는 것도 좋다. 재미도 있고, 선물도 준다. 가보자' 하고 유혹하면, '그럴까' 할지도 모른다. 요는

상대가 납득해서 참가하도록 하는 동원을 하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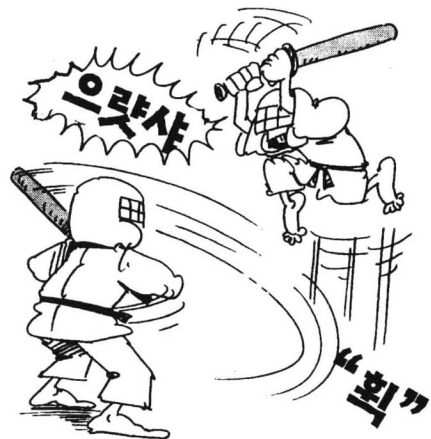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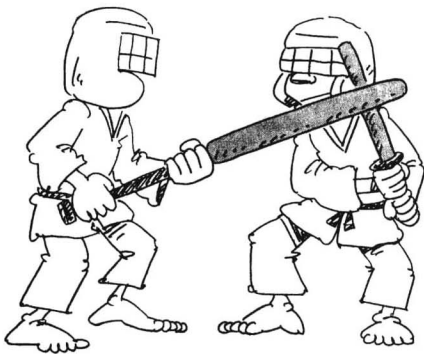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프로그램 운영이다. 어쨌든 레포츠 모임에 와주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오니까 좋다' 라고 생각할지 어쩔지는 프로그램에 달려 있다. 이 운영측면에서 역시 무리하게 강제적으로 하는 일이 있으면 '아 역시 오는 것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게 된다. 즐거움, 편안함, 때로는 상품 등으로, 아무튼 '하고 싶다' 고 생각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를 위해서는 '해보자' 고 유도하고, '재미있지요?' 등으로 실습 설명회를 갖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유도하는 측이 마음으로부터 그 활동을 즐거운 일로 느끼고, 즐거움은 만드는 것이라라고 의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의 마음을 풀어주는 유머도 리드하는 측이 취해야 할 일일 것이다.

스포츠 칼싸움

어린 시절에 누구나 한번쯤은 놀아본 적이 있을 것인 칼싸움을 규칙화하여, 스포츠로서 즐길수 있는 것이 레포츠이다.

고무나 비닐재질로 만들어 그 속에 공기를 넣은 칼모양의 장난감이나, 신문지나 두꺼운 종이를 여러겹으로 칼모양으로 접은 장난감을 이용하여 어떻게하든 상대의 칼을 구부러트리는 쪽이 승리. 1대1의 대결에서부터 2대2나 3대3, 게다가 1대3이나 2대5, 몇명끼리라도 좋은 대결이다. 대결방법도 여러가지 있고, 칼싸움의 즐거움을 한껏 일으킬 수가 있다. 칼의 길이도 짧은 단도를 비롯하



여 장검, 창, 두꺼운 칼 등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가 있다. 보호구는 얼굴을 보호하기 위한 안면보호구만 착용.

대결도 칼싸움 그 자체. 단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발을 사용해도 좋으며, 상대의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뒹굴어도 좋다.

인기가 높은 레포츠의 기초적인 것은 중간 길이의 칼과, 시대극의 긴 칼이 될 수 있으며, 기술은 휘두르기, 내려치기, 밑에서 올려

치기가 기본. 그러나 그러한 형식을 지킬 필요는 없다. 상대가 치는 것을 피할 때에는 가슴을 뒤로 젖히고 배를 당기며, 웅크리게 된다.

은연중에 대결하고 있을 때의 운동량은 상당하다. 3분정도 움직이며 돌고 나면 땀을 흘릴수 있다. 즐기는 동안에 확실하게 운동이 된다. 레포츠로 어울리는 종목이다. **▶▶▶**

〈勞動衛生에서〉

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대학원 2000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저희 대학원은 우리 나라 산업보건을 선도해 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특수대학원으로
로서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 관심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1. 모집과정 : 석사학위 과정(야간)
2. 모집인원 : 〇〇명
3. 모집전공

산업의학전공	의사면허 소지자
산업위생학전공	이공계열 출신자
산업보건간호학전공	간호사면허 소지자
보건영양학전공	영양학 관련학과 졸업자

4. 전형방법 : 면접 및 서류심사
5. 원서교부 및 접수 : 2000. 5. 22(월)~5. 30(화) 09:00~17:00
※ 공휴일 및 개교기념일(5월 25일)은 휴무, 토요일은 12시까지
6. 전형일시 : 2000. 6. 5일(월) 오후 2시
7. 합격자 발표 : 2000. 6. 21(수) 오후 2시
8. 원서교부·문의처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05번지
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대학원 교학과
전화 (02) 590-1133~4